

# 사비시대 사택씨의 위상과 멸망 이후의 후예씨족

---

연민수

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대한일관계사 전공  
msyeon21@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사택씨의 정치적 위상과 왕흥사 창건문제
  - III. 백제 멸망기의 사택천복과 사택손등
  - IV. 일본 망명기의 사택소명과 후예씨족
  - V. 『속일본기』에 보이는 사문영과 고구숙네
  - VI.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I. 머리말

---

『수서(隋書)』 백제전에 대성 8족의 필두에 사씨(沙氏, 沙宅氏)가 기록된 것은 당대 현실의 반영이고 사비시대 사택씨의 씨족적 위상을 함축하고 있다. 성왕대의 상좌평 사택기루(沙宅己婁)를 시작으로 7세기 무왕, 의자왕 시대에는 권력의 중추인 대좌평의 지위는 사택씨가 독점했다고 보인다. 특히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에 보이는 사택적덕(沙宅積德)은 무왕의 장인으로 왕비를 배출한 외척으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백제왕권사에서 사택씨의 존재는 타씨족을 압도하고 있었다. 의자왕 즉위 초년인 『일본서기』 황극기에 보이는 대좌평 사택지적(沙宅智積) 등 왕족, 귀족들의 왜국에 온 사정에 대해 백제왕권으로부터 추방되었을 것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은 의자왕대의 정치개혁에 대한 과잉해석이다. 멸망 전후의 시점에서 좌평의 지위를 갖은 여러 명의 사택씨가 등장하고 있어 이들 씨족의 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사택씨는 백제왕권이 붕괴하는 최후의 시기까지 핵심세력으로서 백제국과 운명도 같이했다고 보인다.

백제국의 패망으로 상당수의 왕족과 귀족들은 의자왕과 함께 당의 장안으로 압송되었고, 부흥운동 실패 후에는 일본으로 망명의 길을 택하게 된다. 당으로 끌려간 사택씨 중에는 대좌평 사택천복(沙宅千福)이 있고, 일족인 좌평 사택손등(沙宅孫登)은 곽무종이 이끄는 당사절을 송사하여 왜국에 파견되는 등 전후 처리를 위한 대일외교를 수행하였다.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좌평 사택소명(沙宅紹明)은 천지조(天智朝)에서 법관대보(法官大輔)에 서임되는 등 고위관료로서 등용되었다. 이후 사택소명의 일족으로 『속일본기』, 『신찬성서록』에는 사문영(沙門詠), 사택만복(沙宅萬福), 사전사(沙田史) 등이 나오고, 정창원문서(正倉院文書)에도 사택가인(沙宅家人), 사택

산(沙宅山), 사택행금(沙宅行金) 등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백강전투 이후 망명한 사택씨의 후예들이고 일본고대사회에서의 사택씨 혈족이 대를 이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같이 사택씨 일족들이 몇세대가 지난 시점에서도 본국의 씨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선조로부터 계승되어 온 출자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비시대 대표적인 귀족인 사택씨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왕도 사비의 왕흥사(王興寺)와 사택씨가 관여했던 익산의 왕흥사[미륵사]와의 관계는 동일한 사찰명으로 인해 고려조의 사서에서부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sup>1</sup> 나아가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백제 멸망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사택씨 가문의 후예씨족들의 동향에 대해 검토한다. 주제의 폭이 다소 확산되어 있으나 사택씨에 대한 전체상을 조망해본다는 의도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 II. 사택씨의 정치적 위상과 왕흥사 창건문제

사씨는 사택(沙宅)을 비롯하여 사탁(沙宅), 사타(沙陀), 사택(砂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남제서』 백제전에 동성왕이 주청하여 남제로부터 ‘행정로 장군매라왕(行征虜將軍邁羅王)’으로 제수된 사법명(沙法名)은 그의 이름이 ‘名’으로 나오고 있어 사법이 씨명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삼국사기』 동성왕 6년조에 보이는 내법좌병 사약사(沙若思)는 복성이 아닌 단성으로 되어

---

1 제II장의 사비 왕흥사 창건문제는 사택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택씨가 관여한 익산의 왕흥사 기록과 혼재되어 있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논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추가하게 되었다. 기왕의 연구와 발굴보고서에도 사료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있어 같은 씨족이 단성과 복성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보이는 신라를 공격한 장군으로 나오는 사백(沙白)은 다음의 개로(蓋盧)라는 인명으로부터 추정하면 무성의 인명표기로 생각된다. 이어 목라근자(木羅斤資)와 함께 나오는 사사노궤(沙沙奴跪)는 웅략기 2년 7월조의 아례노궤(阿禮奴跪), 흠명기 5년 2월조의 진기마련노궤(津己守麻連奴跪) 등에서 보이듯이 왜인이다. 또 신공기 62년조에 나오는 사지비궤(沙至比跪)는 왜인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이라는 갈성을 씨명으로 하는 ‘소즈비코(襲津彦)’를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이들을 사씨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모두 왜인들이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에 보이는 사두(沙豆, 아신왕 7년조), 사조(沙鳥, 무령왕 23년조), 사걸(沙乞, 무왕 28년조) 등은 무성의 인명으로 추정되지만<sup>2</sup>, 씨명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들의 존재를 시야에 넣는다고 해도 사비시대 이전의 사씨의 존재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아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비시대 초기에 활동한 상좌평 사택기루(沙宅己婁)에 대해서 『일본서기』 흠명기 4년(543) 12월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1-1】** 백제의 성명왕이 이전의 조서를 군신에게 두루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다.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다. 상좌평 사택기루(沙宅己婁), 중좌평 목리마나(木弼麻那), 하좌평 목윤귀(木尹貴), 덕솔 비리막고(鼻利莫古), 덕솔 동성도천(東城道天), 덕솔 목리미순(木弼昧淳), 덕솔 국수다(國雖多), 나솔 연비선나(燕比善那) 등이 의논하여, “신들은 품성이 우매하고 어리석어 모두 지략이 없습니다. 임나를 재건하라는 조칙은 속히 받들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성명왕이 “군신들이 의논한 바가 매우 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였다.

2 李弘植, 「百濟人名考」, 『韓國古代史의 研究』(新丘文化社, 1971), 334쪽(初出 1954).

이 기록은 사비로 천도한 이후 성왕대에 가야지역을 둘러싸고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상황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6세기 무령왕 이후 백제는 가야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신라 역시 법흥왕 대 남부기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여 낙동강 서안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 시기의 가야지역 중에서 금관국은 이미 신라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고령의 대가야 역시 결혼동맹 이후 신라의 영향력이 커졌고, 안라국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의 대치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540년대의 이른바 임나 부흥회의는 바로 가야영역을 두고 동서의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상기 사료에서 가야지역에 대한 성왕의 대책회의에 참여한 인물들을 보면, 상좌평 사택기루를 필두로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비리막고, 덕솔 동성도천, 덕솔 목리미순, 덕솔 국수다, 나솔 연비선나 등이다. 백제의 팔족 대성 중에 사(沙), 목(木), 국(國), 연(淵)이 포함되어 있듯이 당시 왕권을 구성하고 있던 주요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상좌평 사택기루는 이 조정회의의 좌장으로 성왕의 국정운영의 계획을 마련하고 건의했다고 보인다. “군신들이 의논한 바가 매우 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한 성왕의 발언은 중신들의 계획안이 수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사비시대의 백제왕권 내에서 사택씨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무왕대의 인물로는 미륵사지 출토의 <사리봉안기>에 보이는 사택적덕(沙宅積德)이다. 그의 딸은 무왕의 왕후로 간택되어 귀족세력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성왕대의 사택기루와 무왕대의 사택적덕의 관계는 <사리봉안기>의 연대인 639년을 기준으로 해도 100여 년의 시차가 있다. 양자의 혈연적 계보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택기루의 지위가 상좌평이고 사택

3 延敏洙,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 『新羅文化』 6(1990), 동 『고대한일관계사』(혜안, 1998).

4 이용현, 「미륵사 건립과 사택씨」, 『新羅史學報』 16(2009), 56-57쪽.

적덕은 좌평으로 족벌적 귀족사회의 성격상 그의 직계 후손이 아니면 올라가기 어려운 최고의 관위라는 점에서 직계손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사택적덕은 무왕의 재위 중에는 좌평의 지위에서 조정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왕시대에는 좌평으로 해수(解繻), 왕효린(王孝鄰)이 나오고, 국지모(國智牟), 귀실복신(鬼室福信) 등 유력 귀족들이 보이고 있으나 사택씨와의 관계가 우선이었다.

한편 45년간 재위한 위덕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왕자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 형제상속으로 이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덕왕 시기에는 무왕은 왕위계승상의 확정된 후보가 아니었다.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명문에는 “정유년(577) 2월 15일에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세웠다”라고 하듯이 위덕왕 재위시에는 왕자가 있었고, 『일본서기』 추고기 5년(597) 조에 왜국에 파견된 아좌태자라는 인물도 보이듯이 복수의 왕위계승 후보군들이 존재하였다. 그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덕왕의 사후 동생 혜왕이 즉위했고, 불과 2년 사이에 조부인 혜왕과 부왕인 법왕의 죽음으로 무왕이 계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타의 왕족과 귀족세력들을 통제 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대로부터 좌평의 지위를 갖는 외척인 사택씨의 협력이 중요하였다. 무왕이 대자책봉을 즉위 3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한 것도 차기 왕위계승권을 선불리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 무왕조에 “풍모와 예의가 훌륭하였고, 지조와 기세가 호걸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로 포용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상을 묘사하고 있다. 『삼국유사』 서동설화에 보이는 신라 공주를 배필로 삼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저자거리에 소문을 퍼트리는 인물상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피살된 이후 신라와의 적대적 관계는 무왕대에도 지속되었고 무왕 3년에 아막산성 전투를 비롯하여 대소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현실의 양국관계와는 괴리된 무왕의 결혼담을 비롯하여 용과 인간의 이종간의 출생신화, 유년시절 마를 케어 생활했다는 설화 등은 후대의 변용된 민담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sup>5</sup>

다시 <사리봉안기>에 보이는 무왕과 사택씨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명문의 내용은 기해년 정월 29일에 백제왕후가 정재(淨財)를 내어 미륵사를 세우고 탑에 사리를 봉안하였고, 그 공덕으로 백제의 '대왕폐하'의 장수와 왕권의 안정, 불법의 흥륭을 기원하고 있다. 앞부분에 명기된 “我百濟王后, 佐平沙宅積德女”는 무왕의 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고 미륵사 건립의 발원자가 좌평 사택씨 가문의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미륵사 창건의 배경에는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무왕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왕권의 협력자인 사택씨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 미륵사는 그 규모에서 기존의 사찰과는 비견될 수 없는 거대한 국가적 마스터 플랜의 결정체였다. 가람배치는 중앙에 금당과 목탑을 세워 1원의 구조를 갖추고 좌우에 각각 금당, 석탑을 갖춘 3원가람 형식이다. 불사의 조영은 기획에서 설계, 석재, 목재 등의 물자 운송에 동원된 인력, 자연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조형물을 완성한 수많은 공인들이 만들어 낸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교예술의 종합체이다. 특히 9층으로 구성된 중앙의 목탑, 그 좌우에 배치된 2개의 석탑은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찰의 조영은 <사리봉안기>에 기록된 무왕 40년(639)이다. 동 명문에 따르면 미륵사의 조영에는 사택씨의 사재가 투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왕권이 함께 한 국가사찰이다. 다만 왕도가 아닌 지방에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sup>6</sup> 무왕의 익산경영론

5 김기홍,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학보』 205(2010) 참조.

6 <사리봉안기> 발견 이후 관련 논고가 적지않게 나왔다. 학설사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에 의해 소개되어 있어 중복은 피한다. 미륵사 창건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

혹은 무왕과 그의 모후의 익산 출자와 관련한 논의로는 국가적 에너지를 총동원한 거대 사찰의 건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신라의 황룡사, 일본의 동대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왕의 권력과 권위의 표상물은 왕도에 설치하였다. 왕도를 대표하는 국가사찰의 조영은 새로운 왕도의 건설과 같은 계획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요컨대 천도 계획과 함께 신왕도 건설시에 기왕의 왕도에 소재했던 사찰의 명칭을 그대로 갖고 이전할 계획하에서 조영했다고 생각된다.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기록된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여 새로 정사를 조영하였다”라는 일절은 무왕대의 익산 천도 사실을 전하고 있다.<sup>7</sup> 천도의 사정은 논외로 하고 계획단계에서 사비의 국가사찰 왕흥사 이전을 추진했을 것이다. 『삼국유사』 무왕조에 “미륵 3상과 회전, 탑, 회랑을 각각 3곳에 세우고 액호를 미륵사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그 주기에 “국사에는 왕흥사라고 불렀다”고 하는 내용은 『삼국사기』 무왕 35년(634)의 왕흥사 낙성기사를 가리키고, 바로 익산의 왕흥사[미륵사] 조영사실을 말한다. <사리봉안기>의 발견으로 『삼국사기』 기록이 5년 일찍 편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비의 왕흥사는 익산 천도 시에 같은 사명으로 재조영되었던 까닭에 왕흥사로 불리우게 되었다.<sup>8</sup>

사비의 왕흥사와 익산의 왕흥사[미륵사] 조영에 대한 기왕의 논란은 『삼국유사』 흥법제3 「법왕금살」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는 정재윤,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の 政治的 動向」, 『한국사학보』 37(2009) 참조.

7 宋日基, 「京都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 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서지학연구』 30(2005).

8 천도 시에 사찰도 함께 이전된 사례는 고대일본의 사찰에서도 보인다. 백제의 영향하에 조영된 일본의 飛鳥寺(法興寺, 元興寺)는 平城京 천도시에 이전하였고, 일본 최고의 귀족인 藤原氏의 氏寺인 興福寺도 2번에 걸친 藤原京, 平성경 천도시에 재조영되었다.



생각된다.

【1-2】 이듬해 경신에는 승 30명에게 도첩을 주어 당시 서울인 사비성[今扶餘]에 왕흥사를 세우게 하였는데, 겨우 기초를 세우다가 승하하셨다.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기반을 닦아 놓은 곳에 아들이 조영하게 시작하여 수기(數紀)을 지나 완성하였다. 그 절을 또한 미륵사라고 한다. (...) [古記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다. 무왕은 가난한 어머니가 지룡(池龍)과 관계하여 낳았는데, 어릴 때의 이름은 서여이고, 즉위한 후 시호를 무왕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왕비와 함께 이 절을 창건하였다.]

상기 사료에는 경신년(600)에 승 30명에게 도첩을 주어 왕흥사 건립을 계획했으나 법왕의 사망으로 중지되어 무왕이 계승하여 수십년(數紀)이 지난 후에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 법왕 2년(600)조에 “왕흥사를 세우고 승 30인을 두었다”는 기사와 동 무왕 35년(634)의 왕흥사 낙성 기사를 참조한 것이다. 즉 『삼국유사』는 『삼국사기』 법왕 2년 왕흥사 창건 기사를 조영개시로 보고 무왕 35년을 완성된 시점으로 기록하였다. 일연선사는 말미의 세주에서 「고기(古記)의 전승과 비교하여 다른 점을 발견하고 “처음에 왕비와 함께 창건하였다(初與王妃草創也)”고 주기고 있는데, 이 내용은 미륵사 〈사리봉안기〉의 내용과 합치한다. 그러나 일연선사는 전거사료를 대조하면서 사명이 같은 왕흥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그 절은 또한 미륵사라고도 한다(其寺亦名弥勒寺)”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위 사료에 따르면 왕흥사는 사비에서 착공했지만 완공된 사찰은 익산 왕흥사[미륵사]로 인식될 수 있어 착공의 장소와 완공의 장소가 서로 다른 불가해한 기록이 되어 버린다.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중이던 고려조 당시 사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현실의 왕흥사[미륵

새가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사비 왕흥사에 투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지역을 달리하는 2개의 왕흥사를 혼동하여 법왕대에 개시하여 무왕대에 완성된 하나의 사찰로 기술한 것이다. 『삼국유사』 무왕조에 “신력으로 하루밤에 산을 무너트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미륵 3상과 회전, 탑, 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國史云王興寺)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은 익산 미륵사창건 연기설화이다. 세주에 “국사에서는 왕흥사라고 하였다”라고 하듯이 일연선사 자신도 사비의 왕흥사와 익산의 왕흥사(미륵사)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륵사라는 이름도 원래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 구비전승으로 내려오던 서동설화가 미륵연기설화와 융합되어 『삼국유사』 편찬시에 전승되어 채록되었다고 보인다.

미륵사의 조영개시를 법왕대로 볼 경우 <사리봉안기>의 기록대로 무왕 40년(639)이 완공시점이므로 40여 년에 달한다.<sup>9</sup> 신라 제일의 사찰 황룡사는 17년 만에 완공되었다. 일본 최대 사찰인 동대사도 『속일본기』에 따르면 741년 국분사(國分寺) 건립의 조가 내려진 후 752년에는 대불개안회가 열리고 대불전이 준공된 시점은 758년으로 17년 걸렸다. 동대사의 사지인 『동대사요록』 「대불전비문(大佛殿碑文)」에는 창건시 대불전의 규모가 전장 29장, 폭 17장, 높이 12장 6척, 기둥 84개라고 기록되어 있고<sup>10</sup>, 당시 사용된 당척을 근대적 도량형법으로 환산하면 각각 85.8m, 50.3m, 37m에 해당하는

9 최근의 미륵사발굴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부여문화재연구소, 『益山彌勒寺址』: 제17차발굴조사, 2018)에도 법왕 2년(600)을 조영개시로 보면서, 사비 왕흥사지 발굴조사보고서(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王興寺址』: 왕흥사지Ⅶ, 2016)에는 사비 왕흥사 창건연대로 기술하고 있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편자와 마찬가지로 양사의 조영시기가 중첩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 東大寺史研究所, 『東大寺要録』(東大寺, 2018), 卷第2, 緣起章第2 「大佛殿碑文」. “大佛殿一宇二重十一間, 高十二丈六尺, 東西長廿九丈, 廣十七丈, 基砌高七尺, 東西砌長卅二丈七尺, 南北砌長廿丈六尺, 柱八十四枝, 殿戶十六間, (….) 塔二基, 並七重, 東塔高二十三丈八寸, 西塔高二十三丈六尺七寸, 露盤高各八丈八尺二寸.”

다.<sup>11</sup> 여기에 동서 2개의 7중탑의 높이는 각각 23장 8촌, 23장 6척 7촌이고 노반의 8장 8척 2촌까지 더하면 100m에 달한다. 이들 사찰을 익산 왕흥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공사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축조의 단계설, 복수 왕후를 상징하여 왕흥사 조영에 역할을 추정하기도 하지만<sup>12</sup>, 이러한 계산법은 또 다른 추론을 낳는다.

한편 1934년 전(傳)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王興' 기와명과 2007년 동 사지의 목탑지에서 발견된 청동제 사리합에 새겨진 정유년(577)에 백제왕창위덕왕이 망왕자를 위해 세웠다는 기록을 근거로 위덕왕대 왕흥사 창건설이 제기된 이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삼국사기』 법왕, 무왕대 2번에 걸쳐 나오는 왕흥사 조영기사에 대한 정합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위덕왕 창건 이후 법왕대 증개창했다는 설도 있지만<sup>13</sup>, 『삼국사기』에 창건 연대를 누락하고 증개창을 창건과 같이 기록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동 사지의 가마터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심 사지에서 150여미터 떨어진 경사면에 총 11기 가마터가 조영되었는데 이중 1호 기에서 고려시대 '王興'명 기와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10기는 백제시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4</sup> 동 보고서에는 고려시대 건물지와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백제시대로부터의 계승성을 기술하고 있지만, 기와명문이 동 사지의 사찰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왕흥사가 백제멸망 이후에도 존속했는지의 여부이다. 문헌상에서 통일신라 이후 『고려사』를 비롯한 기타의 사료에도 왕흥사 관련 기록이

11 1891년에 제정된 근대일본의 도량형법에서 정한 1척은 약 30.3cm이고, 唐尺 1척은 약 9寸 72分로 추정되고 있다.

12 주보돈, 「彌勒寺址 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 왕비」, 『百濟學報』 7(2012): 김영삼, 「利器 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 시기 국왕과 귀족세력의 권력계」, 『한국사연구』 163(2013).

13 조경철, 「백제 왕흥사의 창건과정과 미륵사」, 『史叢』 70(2010), 8-9쪽.

14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興寺址』 II: 기와가마터 發掘調査報告書(2007), 52쪽, 126쪽.

보이지 않아 폐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11월 5일조에 “왕이 계탄을 건너서 왕흥사 잠성을 공격했는데, 7일에 이겨서 7백 명의 목을 베었다”는 백제멸망기의 기록에 근거하면 이때 왕흥사 역시 온존했을리 없으며 신라군에 의해 파괴되고 사찰로서의 기능은 정지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2016년도 왕흥사지 발굴조사보고서에는 백제 이후의 유물 중에는 불상이나 불구 등 사찰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이다.<sup>15</sup> 동 사지의 유물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고려조의 건물지는 백제시대 이래 폐사지의 초석, 자재를 재활용한 현지 지방행정을 위한 관아의 분소와 같은 성격의 부속건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고, 동 보고서에서 말하는 건물지의 시대적 계승성에도 모순하지 않는다. 2019년도 공주 반죽동 일원의 대통사지 추정지 발굴조사에 따르면 고려시대 ‘大通’ 인장기와, ‘대통사(大通寺)’, ‘대통지사(大通之寺)’ 명문기와 등이 출토되고 있어 백제시대 대통사와의 계승성이 명확히 밝혀졌다.<sup>16</sup> 또 『삼국유사』 기이편 무왕조에 나오는 용화산 사자사의 경우도 미륵사지 북쪽 중턱에 소재하는 사자사지에서 ‘至治二年師子寺造瓦’라는 문자가 새겨진 고려시대(충숙왕10년, 1322) 기와의 발견으로 동 사지가 사자사임이 드러났고<sup>17</sup>,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도 대관궁사(大官宮寺), 관궁사(官宮寺), 왕궁사(王宮寺) 등이 새겨진 기와명문의 출토로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있다.<sup>18</sup> 이에 비해 전왕흥사지는 고려조의 기와명을 통한 역추적이지만, 사찰의 연속성을 말하기에는 관련자료와 상충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5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興寺址』 VII(2016).

1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대통사지 추정지[3지역] 학술조사 개략보고서』 (2019), 23쪽.

17 扶餘文化財研究所, 『獅子菴發掘調查報告書』(1994), 3-4쪽, 34쪽.

18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宮里發掘中間報告』 VI(2008), 126쪽, 213쪽, 232쪽.

근년 박남수의 연구에 의하면 전왕흥사지의 '왕흥(王興)'의 '興' 자는 『예변(隸辨)』(淸朝 顧藹吉 편찬)에 소개된 동한의 영제 중평(中平) 2년(185)의 「曹全(景完)碑」에 '典'의 이체자와 일치하고 있어 위덕왕 건립의 사찰을 왕흥사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9</sup> 대세론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王興'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왕실의 흥륭을 기원하는 관용구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위덕왕대 창건설에서는 단지 망왕자를 위한 추복사찰이 어떻게 백제왕실의 불법 의식을 거행하는 장엄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 정치적 배경, 상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사비 왕흥사의 창건은 사료의 정합성에서는 법왕 2년설이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그 소재지도 기왕의 전왕흥사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새롭게 추구해야 한다.<sup>20</sup>

무왕의 익산 천도는 미륵사 창건 직후에 본격화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 무왕의 나이는 이미 노년으로 생의 마지막 2년은 병약한 상태에서 태자에게 정무를 위임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의자왕은 사비시대를 그대로 유지해 갔을 것이며, 사실상 미완의 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 건립은 불국토의 실현을 염원한 국가사찰이었고, 새로 즉위한 의자왕에게는 부왕의 유업을 계승, 상징하는 기념탑이었다. 양사는 백제 호국사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병존해 나갔다고 생각된다.

장년의 나이에 즉위한 의자왕은 무왕의 원자로서 부왕 체제하에서 탄탄한 왕자 수업을 받으며 “용감하고 담력과 결단성 있는[雄勇有膽決]” 인물로

19 박남수, 「신라중고기초의 僧政과 寺主」, 『신라문화』 42(2013), 32-34쪽.

20 傳 왕흥사지의 지리적 환경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전하는 배를 타고 강가에 인접해 있다는 기록과 부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반드시 江岸에만 구속되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접안에서부터 사찰로 이어지는 백제왕 일행의 장엄한 불사의 행렬과 자연경관 등을 포괄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면, 왕흥사의 지리적 위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추구할 수 있다.

성장하였다. 그는 즉위 후 곧바로 당과 왜국에 사신을 보내고 대신라 전쟁에 돌입하여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은 강력한 대외정책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때 왜국에 파견된 인물 중에 사택덕지의 일족인 대좌평 사택지적이 있다. 의자왕의 외조부에 해당하는 사택덕지는 이미 생을 마감했다고 보이며, 그를 대신하여 사택지적이 좌평의 지위에서 의자왕을 보좌하였다. 양자의 혈연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무왕대에 왕비를 배출한 사택덕지의 신분과 대좌평 사택지적의 지위를 보면 직계 혈통일 가능성이 있고, 부자관계로 추정해도 대과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무왕대에 이어 의자왕대에서도 사택씨의 번영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은 왜국에 온 사택지적 일행에 대해 『일본서기』 황극기(皇極紀) 원년(642)과 2년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백제에 사신으로 파견된 아담련비라부가 백제사절과 함께 귀국하여, 백제의 대란 소식을 전하고, 백제사절의 수행원인 겸인(兼人)으로부터 “금년 정월에는 국왕의 모가 죽고 제왕자(弟王子), 아교기(兒翹岐) 및 동모매(同母妹) 여자 4인, 내좌평 기미(岐味), 고명지인(高名之人) 40명을 섬으로 추방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고명지인 40여 명의 섬 추방설은 백제대란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 사료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국왕모는 무왕의 왕후 사택씨를 말하고, 무왕이 세상을 뜬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왕자는 무왕의 동생으로 의자왕의 삼촌인 충승(忠勝)일 가능성이 높다. 교기는 풍왕자를 가리키고<sup>21</sup> 새상(塞上)은 풍자의 동생인 선광(善光)으로 생각된다. 이때의 사절단에는 사택지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온다. 황극 원년 2월조에는 겸인의 전언으로 “거년(去年) 11월 대좌평지적(大佐平智積)이 죽었다”고 하여 사망설이 유포되고 있지

21 西本昌弘,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 107(1985) 참조.

만, 동년 7월조에는 “백제사인 대좌평 지적 등에게 조정에서 향응하였다”고 하여 백제사절로 나온다. 동일한 사료 속에서 착란이 심하다. 이때의 백제사절은 무왕과 왕후의 죽음을 알리고 동시에 왜왕의 조상사와 하등극사를 겸하고 있다. 황극 원년(642) 4월조에는 “대사 교기가 종자를 이끌고 배조하였다”고 하듯이 풍왕자 교기는 사절단의 대표로서 왔고, 의자왕의 강력한 군사적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대왜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sup>22</sup> 이어 4개월이 지난 동년 8월에 백제사절의 귀국기사가 나온다. 이때 풍왕자 등 일부 왕족을 제외하고는 사택지적 등 대부분의 사절은 귀국하였다.

갑인년(654) 기년명이 있는 사택지적비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몸이 쇠해 가는 것은 탄식하며 “금을 뚫어 진당(금당)을 세우고 옥을 다듬어 보탑을 세우니(穿金以建珍堂鑿玉以立寶塔)”라고 명기하고 있듯이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 절을 세웠다. 씨사(氏寺)의 성격을 띤 사찰의 조영은 당대 최고의 사택씨 가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금과 옥으로 장식된 사찰의 장엄을 표현하고 있어 사택씨의 권력과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사택지적은 적어도 왜국에 파견된 642년 이후 654년 직전까지 사택씨 가문의 씨족장이자 백제왕권의 대좌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 Ⅲ. 백제 멸망기의 사택천복과 사택손등

백제 멸망기에 보이는 사택씨로는 당의 포로로 압송된 대좌평 사택천복(沙宅千福)과 사택손등(沙宅孫登)이 있다. 사택천복에 대해서는 <대당평백제국비>,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2 延敏洙, 「백제의 대외외교와 왕족」, 『백제연구』 27(1997), 동 『고대한일관계사』, 혜안(1998).

- 【2-1】** 그 왕 부여의자 및 태자 융(隆) 이외 왕자 효(孝) 13인은 대수령 대좌평 사택천복(沙叱千福), 국변성(國辯成) 이하 700여 인과 함께 이미 궁궐에 들어가 있다가 모두 사로잡히니 말가죽을 버리게 하고 우거에 실어다가 잠시 있다가 사훈(司勳)에 올리고 이에 청묘(淸廟)에 드렸다(大唐平百濟國碑).
- 【2-2】** 의자왕이 좌우 측근을 데리고 밤을 타서 도망하여 웅진성에 몸을 보전하고, 의자왕의 아들 융은 대좌평 천복(千福) 등과 함께 나와 항복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 【2-3】** 장군 소정방 등에게 잡힌 백제왕 이하 태자 융 등 여러 왕자 13명, 대좌평 사택천복, 국변성 이하 37명, 모두 50여 명을 조정에 바쳤다(『일본서기』 齊明紀 6년 7월조).

사택천복에 대해 <대당평백제국비>에는 ‘대수령(大首領) 대좌평(大佐平)’으로 표기하고 『삼국사기』, 『일본서기』에는 대좌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보다 연배인 대좌평 사택지적이 <사택지적비>에 노쇠하여 병약한 상태가 갑인년(654)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사택천복의 대좌평 지위는 사택지적이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혹은 사망 직후에 계승되었을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적통으로 이어지는 부자지간일 가능성이 높고, 사택지적이 노년임을 감안하면 사택천복은 40대 장년으로 추정된다. 의자왕대에서도 대좌평은 사택씨의 독점적 지위였고, 백제왕권내에서도 명문가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상기 사료에서 “의자왕의 아들 융은 대좌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 항복하였다”라고 하여 사택천복은 당군에게 포로가 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군 의자왕을 보위하며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 기록을 전하는 <대당평백제국비>는 당 학사 하수량의 글로서 소정방 이하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의 공을 현창한 기공비이다. 당시의 생생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웅진도독부 설치 직후에 제작되었다. 사택천덕에 대한 정보도 그를 심문하



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백제왕권 내에서 그의 위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특히 <대당평백제국비>에 그를 대수령을 관칭하고 있듯이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명문에 새긴 것은 사택천복의 인물상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일본서기』 천지(天智) 10년(671) 11월조에 보이는 사택손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2-4】 대마국사가 사자를 축자대재부에 보내 이달 2일에 사문도구(沙門道久), 축자군살야마(筑紫君薩野馬), 한도승사파(韓島勝裳婆), 포사수반(布師首磐) 4인이 당에서 돌아와서 “당의 사신 곽무중 등 600여 인과 송사 사택손등(沙宅孫登) 등 1,400인, 합해 2,000인이 배 47척에 타고 비지도(比知島)에 정박하고는 지금 우리는 사람과 배가 많다. 갑자기 가면 저쪽의 방인(防人)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활을 쏘고 싸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의논하여 미리 내조의 뜻을 알리도록 먼저 저희 도구(道久)들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사택손등은 『일본서기』 제명(齊明) 6년(660) 10월조의 분주에 “백제왕 의자, 그의 처 은고(恩古)와 아들 융(隆) 등과 신하 좌평 천복(千福), 국변성(國辨成), 손등(孫登) 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에 소장군에게 사로잡혀 당나라로 끌려갔다”고 하듯이 3명의 좌평 중에 손등을 가리킨다. 상기 기록은 당측에서는 671년 정월에 웅진도독부의 이수진(李守眞)을 보냈지만 재차 당 본국에서 곽무중을 대표로 하는 6백 명과 웅진도독부의 사택손등을 송사로 하여 1천 4백 명 등 2천 명을 왜국에 보냈다. 이때의 2천 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절단은 왜인 포로이고<sup>23</sup>, 당으로 끌려간 포로와 웅진도독부

23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123쪽; 直木孝

관할하에 있던 왜인들이다. 당의 사절단은 웅진도독부의 존속과 신라와 고구려 대책의 일환으로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한 왜인 포로를 송환하였다. 대좌평 사택천복의 일족인 좌평 사택손등은 당으로 압송된 후, 다시 웅진도독부로 귀환시켜 사절단을 왜국에 보내는 임무를 맡겼다. 당의 포로가 된 예군(禰軍)도 천지 4년(664)에 '백제좌평(百濟佐平) 예군(禮軍)'의 대마도 도착 기록이 보이고<sup>24</sup>, 이듬해 9월에도 당의 유덕고 등과 함께 왜국에 파견되었다.<sup>25</sup> 이것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형태로 현지 사정에 밝은 복속민 활용책이다.

한편 사택손등이 일본에 파견된 그해 정월에 일족인 좌평 사택소명은 왜왕권의 백제유민 등용정책에 따라 법관대보에 임명되었다. 양자의 혈연관계는 알 수 없으나 동세대의 인물로서 모두 좌평의 지위에 있었던 백제 최고위 관인들이고 백제 멸망기의 사택씨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때 사택손등과 사택소명이 조우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에서는 이미 왜왕권의 고위관인이 된 사택소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일 외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택손등을 사절단의 일행에 편입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일본 망명기의 사택소명과 후에씨족

663년 주류성의 함락과 더불어 백제의 부흥운동을 막을 내리고 많은 백제의 유민들은 왜의 패잔병과 함께 왜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중에는

次郎, 『古代日本と朝鮮・中國』(講談社學術文庫, 1988), 200-206쪽.

24 『善隣國寶記』. “海外國記曰, 天智天皇三年四月, 大唐客來朝, 大使朝散大夫上柱國郭務儆等卅人, 百濟佐平禰軍等百餘人, 到對馬島…….”

25 『日本書紀』天智紀4년 9월 임진조.

왕권을 구성하고 있던 지배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지위와 능력에 따라 왜왕권에 의해 발탁되어 관인으로 등용되었다. 천지 10년(671) 춘정월에 내린 관위와 관직 수여기사에는 사택소명을 비롯한 다수의 백제인들이 관위와 관직을 수여받았다.

**【3-1】** 이달에 좌평 여자신(余自信), 사택소명(法官大輔)이대에게 대금하를 주었다. 귀실집사(學職頭)이다에게 소금하를 주었다. 달솔 곽나진수(병법에 밝았다), 목소귀자(병법에 밝았다), 역례복유(병법에 밝았다), 답발춘초(병법에 밝았다), (...) 나머지 달솔 등 50여 인에게 소산하를 주었다.<sup>26</sup>

여자신, 사택소명(沙宅紹明)을 비롯한 16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달솔 등 50여 인에게 관위와 관직을 부여하였다. ‘좌평 여자신, 사택소명’이라고 하듯이 사택소명은 좌평의 지위에 있었다. 백제 멸망기의 사료상에 보이는 사택씨 좌평만 해도 3인이다. 사택소명은 상기 사료에 보이듯이 대금하의 관위와 법관대보의 관직을 받았다. 법관은 율령제에서 식부성으로 대보는 차관에 해당한다. 법관은 천지조 때에 처음으로 설치된 관부이다. 『일본서기』 천무 주조(朱鳥) 원년(686) 9월 조에 천무의 빈례 때에 추도문을 읽는 인물의 관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법관(法官), 이관(理官), 대장관(大藏官), 병정관(兵政官), 형관(刑官), 민관(民官) 등이 나온다. 이들 6관은 대보영, 양로령에서의 식부(式部), 치부(治部), 대장(大藏), 병부(兵部), 형부(刑部), 민부(民部)에 해당한다. 천무조에 나오는 6관은 이미 천지조 때에 제정된 것으로 일부 관제는 백제 6좌평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사택소명이 맡은

26 『日本書紀』天智紀10년 춘정월(是月)조.

법관은 백제의 내법으로부터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고대일본의 최고가문 등원가(藤原家)의 기록인 『가전(家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3-2】 帝令大臣撰述禮儀，刊定律令，通天人之性，作朝廷之訓，大臣與時賢人，損益舊章，略爲條例

이 기록은 천지천황이 대신에게 명하여 의례를 찬술하고 율령을 편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천지 7년(668)경에 중심겸족(中臣鎌足)을 중심으로 대화개신 이후 단독법령(舊章)을 집성하여 체계적인 법전(條例)을 편찬하는 사업이 개시되었다. 이른바 근강령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대신이 때의 현인과 함께 구장(舊章)을 검토하여 거의 조례를 완성하였다”고 한 ‘時的賢人’이란 근강령의 편찬자로서 고향현리(高向玄理), 승민(僧旻)과 함께 백제에서 망명한 사택소명(沙宅紹明), 허솔모(許率母) 4인이 거론되고 있다.<sup>27</sup> 이 중에서 고향현리는 효덕 백치 5년(654) 2월에 견당사로 파견중 당에서 사망하였고<sup>28</sup>, 승민 역시 백치 4년(653) 6월에 세상을 떠났다.<sup>29</sup> 당의 율령 지식을 알 수 있는 두 인물이 사망한 까닭에 법관대보에 임명된 사택소명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근강령 제정의 책임자로 중신겸족이 임명되었지만, 이것은 관인사회의 정치적 서열관계이고 실제로 법령의 제정에 세부적 조문을 작성한 것은 법관대보인 사택소명으로 생각된다. 백제에는 6좌평 중에 내법좌평이 있고, 내관에 의례를 담당하는 법부, 외관에는 사법을 다루는 사구부(司寇部)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 관부가 있다. 좌평의 지위에

27 瀧川政次郎, 「近江令の編纂者」, 『律令の研究』(刀江書院, 1921), 46쪽; 藪田香融, 「古代の知識人」, 『岩波講座日本通史』第5卷 古代4(1995), 117쪽.

28 『日本書紀』孝德紀 白雉5년 2월 조

29 『日本書紀』孝德紀 白雉4년 6월 조.

있던 사택소명은 이들 관부의 장관에 보임되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는  
율령에 밝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왜왕권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발탁, 등용할 수 있었다. 사택소명이 받은 대금하의 관위 역시 대보령제  
하에서는 중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8성의 장관급에 해당한다.

『가진』에도 “백제인 소자 사택소명은 재사가 발굴이고 문장이 당대의  
 으뜸이다”라고 평하고 있으며 그는 당대의 권신 등원겸족(藤原鎌足)의 비문  
을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sup>30</sup> 사택소명이 사망했을 당시 『일본서기』  
에는 “대금하 백제의 사택소명이 죽었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그 당시에는 수재로 불리었다. 이에 천황이 놀라서 은혜를 내려 외소자(外小  
紫)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본국의 대좌평의 관위를 내렸다.”<sup>3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소자는 중3위의 고위관이다. 아울러 백제의 대좌평의 관위  
를 내린 것은 망국의 유민에 대한 예의와 당대의 최고의 석학에 대한  
예우였다.

사택소명의 사후 『일본서기』 지통기 5년(691) 12월 기해조에 보이는  
사택씨에 대해서 살펴보자.

**【3-3】** 의박사 무대삼 덕자진(德自珍), 주금박사(呪禁博士) 목소정무(木素丁  
武), 사택만수(沙宅萬首)에게 각각 은 20량을 주었다.

지통 5년에 사택만수는 의박사 덕자진, 주금박사 목소정무와 함께 은  
20량을 하사받았다. 이들은 백강전투 직후에 망명한 2세대 인물로 보인다.  
덕자진의 관위는 무대진으로 율령관제에서 중7위상에 해당하는 중하급

---

30 『藤氏家傳』 「鎌足傳」上卷. “大師百濟人小紫沙宅昭明, 才思穎拔, 文章冠世. 傷令名不傳,  
賢德空沒. 仍製碑文.”

31 『日本書紀』天武紀 2년 윤6월 조.

관위이다. 사택만수 등도 별도의 관위가 생략되어 있어 동일한 관위였다고 생각된다. 대보령제 「선서령」에서는 21세 이상이 된 종5위의 적자는 종8위상의 관위를 받는다. 이들은 음서의 영향으로 부의 관위에 따라 관위과 관직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5위 이상의 자제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도 있다. 의박사, 주금박사의 칭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서에 보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금박사는 율령제에서 전약료에 속한 관인으로 주금사의 양성을 위해 설치된 보직으로 정원은 1인으로 종7위상의 관위이다. 율령제 하에서의 주금은 질병치료나 안산(安産)에 종사했으며, 국가안태의 도교적 주술도 직무의 하나였다. 『속일본기』 천평 2년(730) 3월조에 “陰陽醫術及七曜頒曆等類, 國家要道”라고 하여 음양, 의술, 역법 등은 국가가 중요시하는 도라고 하고 엘리트 관인들을 선발하여 후계자를 양성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들이 은 20량을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것은 의술과 관련하여 공헌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료의 ‘醫’는 원래 밑변에 ‘巫’가 들어간 이체자로서 ‘醫’로 쓰였다. 이것은 주술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나타낸다.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 “성국공주가 병이 났는데, 무의(巫醫)도 효험이 없자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의원을 구하게 하였다<sup>32)</sup>”라는 기록에도 보이듯이 무의는 주금사에 해당한다. 『일본서기』 민달기 6년(577) 11월조에도 백제에서 불교 경전을 비롯하여 율사, 선사, 비구니, 주금사, 조불사, 조사공 등 6인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의 주금사는 주술로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파견되었다.<sup>33)</sup> 당시 왜국에서는 역병이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왜왕 흠명도

32 『三國遺事』 권3 興法, 「阿道基羅」조.

33 주금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장인성,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2000); 吉基泰, 「백제의 呪禁師와 藥師信仰」, 『신라사학보』 6(2006) 참조.

역병의 희생자였고, 민달 역시 이때의 감염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왜왕권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교를 통한 위기를 극복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을 백제에 파견을 요청하였다.

『양로령』 직원령의 「전약료」조에 소속된 의료관인을 보면, 의박사, 침박사, 안마박사, 주금사, 주금박사 등이 있다. 전약료는 궁내성에 소속한 궁정관인들의 의료, 의술 인력의 양성과 의약품의 재배와 보급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이 중에서 주금사도 중요한 의료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금박사는 주금생을 교육하는 역할이다. 사택씨의 일족인 사택만수가 사택소명의 아들인지 방계의 사택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료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계보로는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사택소명의 왕권내에서의 위치로 봐서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교육을 받고 관위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속일본기』 신호경운(神護景雲) 2년(768) 7월 임오조에 “여유(女孺) 무위(無位) 사택만복(沙宅萬福)에게 종5위하를 주었다”고 하여 사택씨가 나온다. 여유는 왕실 후궁의 내시사(內侍司)에 소속된 하급 여관이다. 율령제 하에서의 내시사에는 상시(尙侍) 2명, 전시(典侍) 4명, 장시(掌侍) 4명, 여유(女孺)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시사의 여관들은 중앙의 귀족의 딸이나 지방호족으로부터 조정에 봉사하는 채녀가 선발되어 되어 각 관사에 배치되었다. 『양로령』 후궁직원령 「내시사(內侍司)」조에는 내시사 장관은 종5위 상시이고 차관은 종6위 전시이다. 이들은 대납언(大納言), 중납언(中納言) 등 공경의 딸이 대체로 선발되었다. 장시는 정7위 판관이고, 여유는 후궁의 하급관인이지만,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인정받아 상위 관위로 승진하는 인물도 나온다. 특히 내시사의 여관은 천황에 근시하여 주청(奏請)과 전선(傳宣), 궁중의 예식 등 담당하는 천황의 비서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문과 예법에 밝은 유능한 여성이 발탁되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고위 관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상기 사택만복은 관위가 없는

무위에서 종5위하의 관위를 받았듯이 실로 파격적인 관위 수여이다. 고위 관위를 받은 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재능으로 무언가의 공헌을 했거나, 천황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내시사의 장관급인 최고의 신분으로 승격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택만복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성인 칭덕천황으로 궁중에 근시하며 비서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창원문서 신호경운 원년(767) 10월 10일부 「아미타회과지식교명(阿彌陀悔過知識交名)」(『大日本古文書』17-111-114)에는 「아미타회과지식」을 행하는 78명의 인명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 '사택가인삼문(沙宅家人三文)'이라고 하여 사택가인(沙宅家人)이라는 인명이 들어 있다. 회과(悔過)는 불교에서 개인의 죄와 과오를 참회하는 행위로서, 고대일본에서는 나라시대에 성행한 회과를 통해 죄과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다. 『속일본기』에 나오는 회과 관련 기사를 보면, 천평 11년(739)에 전국의 사찰에 오곡성숙경을 독경시키고 7일 7야 동안 회과한 것을 시작으로<sup>34</sup> 동 16년(744)에는 7일간의 약사회과가 행해졌다.<sup>35</sup> 동 17년에는 성무천황의 쾌유를 비는 왕경, 기내 및 명산처에서 약사회과의 법회를 열게하였다.<sup>36</sup> 천평승보 원년(749)에는 정월 초하루에서 49일간 전국의 국분사와 금광명사에 회과법회를 열어 금광명경을 독경시켰다.<sup>37</sup> 그리고 동 천평승보 3년(759)에는 전국 사찰에 매년 장월에 회과를 하도록 정례화시켰고<sup>38</sup>, 신호경운 원년(767)에는 기내와 7도 제국에 17일간 천하태평을 기원하기 위한 회과법회를 열었다.<sup>39</sup> 불교의 참회법은 감죄신앙과 결부되어 성행하였고, 신앙의 대상에

34 『續日本紀』天平11년 7월 조. “宜令天下諸寺轉讀五穀成熟經，并悔過七日七夜焉。”

35 『續日本紀』天平16년 12월 조. “令天下諸國，藥師悔過七日。”

36 『續日本紀』天平17년 9월 조. “又令京師畿內諸寺及諸名山淨處行藥師悔過之法。”

37 『續日本紀』天平勝寶원년 정월 조. “始從元日，七七之內，令天下諸寺悔過，轉讀金光明經。”

38 『續日本紀』天平實字3년 6월. “天下諸寺，每年正月悔過。”

39 『續日本紀』神護景雲원년 정월 조. “畿內七道諸國，一七日間，各於國分金光明寺，行吉祥天悔過之法，因此功德，天下太平。”



따라 약사회과, 아미타회과, 석가회과, 관음회과로도 칭해졌다. 이 중에서 사택가인은 아미타회과의 법요의식을 행하고 있다. 인명에 붙은 삼문(三文)이란 전 3문을 말한다. 아미타불에 바치는 보시로서 상기 문서에 보이는 지식(知識)은 선업을 쌓기 위해 적선하는 행위이다. 이때의 「교명(交名)」의 작성은 천평보자 2년(750) 2월경으로 광명황태후의 쾌유를 비는 사경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불경 3,600권의 사경을 위한 집전(集錢) 리스트이다.<sup>40</sup> 이들 대부분은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관인이고 사경생으로서 사경에 참가하고 있다. 사택가인은 사경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동대사사 내의 관인이고 지식전(知識錢)을 헌납하고 있다. 지식전도 차이가 있어 50문을 보시한 사람이 3명이고 10문도 30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1문에서 5문까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택가인은 사택소명과 4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일족으로 증손 정도의 인물을 것으로 보인다.

천평승보 5년(753) 6월15일부 「조동대사사해(造東大寺司解)」(『大日本古文書』25-132-134)에는 沙宅山[日二十四/夕七], 沙宅行金[日二十五/夕四]이라고 하여 2인의 사택씨 인명이 보인다. 조동대사사는 동대사 조영과 사경사업을 목적으로 태정관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관사이다. 이 문서의 말미에 「以前, 官人舍人并諸內人等, 八月中上日如前, 以解」라고 기록되어 있어 열기된 64명은 여기에 소속된 관인, 사인, 내인들로서 출근일수(上日)를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된다. ‘팔월중상일(八月中上日)’이라는 표현으로부터 8월 중에 사택산(沙宅山)은 14일, 사택행금(沙宅行金)은 25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석칠(夕七)’ ‘석사(夕四)’는 야근 일수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대체로 중하급 관인으로 생각된다.

사택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에 남아있는 사택씨 일족은 사례가

40 榮原永遠男, 「奈良時代の阿彌陀悔過: 「阿彌陀悔過知識交名」について」, 『續日本紀と古代社会』創立60周年記念 続日本紀研究会編(塙書房, 2014), 136-137쪽.

많지 않아 그 구체적인 실태는 알 수 없다. 특히 8세기 중엽 이후에는 관인으로 출사한 인물들이 두드러지지 않아 사택소명의 능력에 비해 직계 후손들의 번영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 V. 『속일본기』에 보이는 사문영과 고구숙네

『속일본기』 신호경은 2년(768) 6월 경자조에는 사택씨의 일족으로 보이는 사문영과 그의 후예씨족인 고구숙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1】 내장두(內藏頭) 겸 대외기(大外記) 원강수(遠江守) 종4위하 고구숙네 비랑마려(高丘宿禰比良麻呂)가 죽었다. 그 조부는 사문영(沙門詠)이고 근강조(近江朝) 계해년에 백제에서 귀화하였다. 부는 낙랑하내(樂浪河內)이고 정5위하 대학두(大學頭)이다. 신구원년에 고구련(高丘連)으로 개성하였다. 비랑마려(比良麻呂)는 어려서부터 대학에 놀러다니면서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다. 대외기를 역임하였고, 외종5위하를 받았다. 보자 8년에 중만(仲滿, 藤原仲麻呂)이 반란을 꾀한다는 것을 밀고해 종4위하를 받았다. 경원 원년에 숙네(宿禰)의 성을 받았다.

이 사료는 고구숙네비랑마려(高丘宿禰比良麻呂)의 「졸년」 기사이다. 그의 관직은 조정의 물품을 관리하는 내장료의 장관 내장두이자 태정관 소속 대외기와 지방국사 원강수를 겸직하고 있다. 그의 최종 관위는 종4위하이다.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거친 고위관리임을 알 수 있다. 상기 졸년기사에

따르면 그의 조부는 사문영(沙門諲)이고 근강조 계해년에 백제로부터 귀화했다고 한다. 계해년은 백제 주류성이 함락한 663년으로 부흥운동의 실패 직후 사문영은 그의 일족을 거느리고 일본에 망명하였다. 『일본서기』 천지 2년(663) 9월조에 “백제의 주류성이 마침내 당에 항복하였다. (...) 드디어 전부터 침복기성에 있는 처자들에 가르쳐 나라를 떠날 것을 알렸다”라고 하듯이 백제부흥운동의 주역들은 은거하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사문영의 아들이자 고구숙네의 아버지인 낙랑하내(樂浪河内)는 정5위하 대학두에 보임되었고, 신귀 원년(724)에 고구련(高丘連)으로 개성하였다. 사씨 일족은 일본 정착 이후 어느 시점에서 낙랑하내로 개성하였고, 724년에는 다시 고구련을 씨성으로 삼고, 신호경운 원년(767)에 사성 받아 고구숙네라는 씨성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기 고구숙네의 조부에 해당하는 사문영은 사택과 같은 복성이 아닌 단성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본 『남제서』 백제전의 사법명(沙法名)의 사법씨, 『삼국사기』 동성왕 6년조에 보이는 ‘사약사(沙若思)’의 사씨 등 복성과 단성이 병존하고 있었다. 사문영이 사택씨 일족인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백제유민 사택소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백제에서의 관위도 불명이고 망명 이후의 관위와 관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천지 10년(671)의 백제유민에게 내린 관위 수여식에서 “달솔 등 50인에게 소산하의 관위를 주었다”는 기록으로부터 이 50인 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백제에서의 관위는 달솔로 추정되고, 그가 받은 소산하는 대보령제에서 중7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문영에 대해 일본근세의 국학자 계충(契沖)이 저술한 『만엽집』 주석서인 『만엽대장기(万葉代匠記)』에 환속한 승려로 추정한 바 있다.<sup>41</sup> 이것

41 川上富吉, 「高丘連河内伝考-萬葉集人物伝研究(十)」, 『大妻女子大学紀要』 49(2017), 2-3 쪽 참조.

은 ‘沙門’이라는 명칭에서 나온 발상이지만 오류이다. 『속일본기』 대보 3년(703) 10월조에 “승 용관(隆觀)은 환속하였는데, 본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재(財)이다. 사문행문(沙門幸甚)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화동 7년(714) 3월조에 “사문의법(沙門義法)이 환속하다”, 동 양로 원년(717) 7월조에 “사문변정(沙門辨正)을 소승도로 삼다”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속승일 경우는 환속 사실을 밝히고 있고, 사문 다음의 법명은 예외 없이 2자명이고 기타의 사료에도 예외는 없다. 그의 성은 사씨이고 백제에서 망명한 관인이다.

사문영의 아들 낙랑하내에 대해서는 『속일본기』 화동 5년(712) 7월조에 파마국 대목 중8위상 낙랑하내가 정창(正倉)을 만든 공로로 1계급 승진과 실, 베를 포상받았다.<sup>42</sup> 양로 5년(721) 정월 경오에는 “정6위하 낙랑하내 등은 퇴조 후에 동궁에 근시하라”는 명을 받는다.<sup>43</sup> 성장기의 동궁의 학문적 소양을 쌓는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동년 정월 갑술조에는 관료 중에서 학업이 뛰어나고 모범이 될 만한 자를 포상하는데 낙랑하내는 문장가로 나오고 이때 그의 관위는 정6위상이다.<sup>44</sup> 『가전』(『寧樂遺文』下-885)에도 문사에 뛰어난 인물로 기조신청인(紀朝臣淸人), 산전사어방(山田史御方) 갈정련광성(葛井連廣成), 백제공왜마려(百濟公倭麻呂), 대왜기촌소동인(大倭忌寸小東人) 등 당대의 석학들과 더불어 낙랑하내에서 개성한 고구려하내(高丘連河內)의 이름이 열기되어 있다. 이들은 고전에 밝은 유식자로서 역사서, 율령의 편찬 등에 참여한 최고 문장가들이고 모두 도래계 씨족이다. 그는 천평 3년(731)에 외종5위하로 승진하면서 왕도 우경의 사법, 행정, 경찰 등의 직무를 책임지는 우경량(右京亮)이 된다.<sup>45</sup> 낙랑하내가 대학두

42 『續日本紀』 和銅5년 7월조.

43 『續日本紀』 養老5년 정월 경오조.

44 『續日本紀』 養老5년 정월 갑술조.

45 『續日本紀』 天平3년 9월 계유조. “癸酉, 外從五位下高丘連河內爲右京亮”

임명된 것은 상기 정5위하 대학두(大學頭)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적어도 외종5위하 우경량에 임명된 731년 이후 어느 시점이다. 대학두는 직원령의 관위상당으로는 종5위이다. 대학두는 율령제하에서는 대학료의 장관으로 그 밑에는 행정관인 및 교수인 박사, 조교 등 8인과 학생 400인 그리고 음박사, 서박사, 산박사 6인과 산생 20인, 사부 20인, 직정 2인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그는 『만엽집』에도 천평 15년(743)의 「고구하 내런가이수(高丘河內連譚二首)」(6-1038, 1039)라고 하여 단가 2수를 남기고 있어 시문에도 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문영의 손자에 해당하는 고구숙네비량마려(高丘宿禰比良麻呂)에 대해서는 상기 「졸년」 기사에 어려서부터 대학에서 배우고 널리 서적을 탐독했다고 한다. 타고난 재능에다가 대학두로 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전을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고구숙네비량마려에 대해서는 『속일본기』에 그의 관력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천평보자 5년(761)에 외종5위하로 월전국 국사로서 차관인 월전개에 임명되었다. 아마도 정4위하 관위를 갖은 아버지의 음서에 의해 20세가 된 시점에서 종8위로부터 출사했다고 보인다.<sup>46</sup> 3년 후인 764년에는 외종5위하로 승진하여 내장료의 차관에 보임되었고 대외기도 겸직하였다.<sup>47</sup> 천평보자 8년(764) 9월 조에 등원중마려(藤原仲麻呂)의 반란을 천황에게 밀고한 공으로 외종5위하에서 종4위하로 특진하였고<sup>48</sup>, 천평신호 원년(765) 정월에는 종4위하, 훈4등을 받았다.<sup>49</sup> 신호경운 원년(767) 3월에는 이해 법왕궁직을 신설했는데 대외기로서 원강국 장관인 그를 법왕궁직의 차관인 亮에 임명하였다. 법왕궁직은 당시 권승이었던 도경(道鏡)이 법왕에 임명되자 설치한 기구로서 그는 병중에

46 『續日本紀』 天平實字 5년 정월 임인조. “外從五位下高丘連比良麻呂爲越前介”

47 『續日本紀』 天平實字 8년 정월 기미조. “內藏助外從五位下高丘連比良麻呂爲兼大外紀”

48 『續日本紀』 天平實字 8년 9월 임자조.

49 『續日本紀』 天平神護 원년 정월 기해조. “從四位下〔…〕高丘連比良麻呂〔…〕並勳四等”

있던 효검상황(후에 称徳天皇으로 重祚)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 것을 계기로 신임을 얻어 태정대신선사, 법왕에 보임된 인물이다. 즉 권력의 실세를 위해 만든 특별 관사에 엘리트 관인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사의 장관인 대부직에는 고구려계 씨족인 중3위 고려조신복신(高麗朝臣福信)이 임명되어 도래계 씨족이 장차관을 독점하게 된다.<sup>50</sup> 신호경은 2년(768) 6월에는 내장두의 지위에서 대외기 및 원강수를 겸임하게 된다.<sup>51</sup> 한편 정창원문서 천평보자 8년 7월 25일부 「시약원해(施藥院解)」에도 대외기 겸 내약조(內藥助)인 高丘連[比良麻呂]라고 하여 그의 이름 비랑마려(比良麻呂)를 서명한 문장이 나온다.<sup>52</sup> 이 문서는 시약원에서 상급기관인 내장료에 올린 것으로 의약품 조달을 위한 물품청구서로서 내장료 차관인 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것이다.

『신찬성씨록』 하내국 제번 「고구속네(高丘宿禰)」조에는 이 씨족의 출자에 대해 “백제국 공족대부(公族大夫) 고후(高侯)의 후손인 광릉고목(廣陵高穆)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사문영의 후에씨족인 고구속네의 본계장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신찬성씨록』에서는 고구속네에 대해 ‘漢’이라고 하여 중국계로 분류되어 있지만, 백제국 출신이라는 모순된 내용을 실고 있다. 아마도 이 씨족은 『신찬성씨록』 편찬 단계에서 그의 원 조상을 중국계로 개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도래계 중에서는 중국계 백제인을 주장하는 씨족들이 적지 않았고, 문명국 당에 대한 동경이 출자의 개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속일본후기』 승화(承和) 6년(839) 8월 갑술조에는 고구속네의 일족인

50 『續日本紀』神護景雲원년 3월 기사조. “始置法王宮職, 以造宮卿但馬守從三位高麗朝臣福信爲兼大夫, 大外記遠江守從四位下高丘富連比良麻呂爲兼亮.”

51 『續日本紀』神護景雲2년 6월 경자조. “內藏頭兼大外記遠江守從四位下”

52 天平寶字8年7月25日付「施藥院解」(『大日本古文書』16-504). “知院事外從五位下 行大外記兼內藏助高丘連「比良麻呂」”

고구숙네백흥(高丘宿禰百興)은 등원상사(藤原常嗣)를 대사로 하는 견당사의 귀국기사에 이름이 보인다. 그는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승화 5년(838) 7월 2일조에 등원상사를 대사로 하는 견당사에 준록사(准錄事)로서 나오고 있다.<sup>53</sup> 녹사는 기록, 문서를 담당하는 직무이고 한문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 선발되었다. 인수(仁壽) 원년(851)에는 외종5위하 미장개(尾張介)가 되었고<sup>54</sup>, 제형(齊衡) 3년(856)에는 월전개(越前介)에 보임되었다.<sup>55</sup> 또 정관 원년(859)에는 화천수(和泉守)가 되었고<sup>56</sup>, 정관 5년(863)에는 하내수(河內守)에 오르는 등 다양한 관력을 갖고 있다.<sup>57</sup>

그밖에 『신찬성씨록』 좌경제번에 “사전사(沙田史)는 백제국인 의보니왕(意保尼王)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전사씨의 출자가 기록되어 있다. 史는 도래계 씨족들에게 많은 가바네(姓)이고 사전은 씨명이다. 사전사라고 하는 일본적 씨성을 개성하기는 알 수 없으나 사전이라는 씨명은 원래 沙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사문영의 사례에서 단성으로 사씨의 망명이 있었듯이 사전사도 백강전투 직후 망명한 백제유민의 후손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찬성씨록』 화천국 제번의 「위옥촌주(葦屋村主)」조에 위옥촌주는 “백제의 의보하라지왕(意寶荷羅支王)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사전사씨의 조상인 의보니왕 역시 ‘오호네왕’이라고 읽듯이 의보가라지왕과도 통한다. 또한 『일본서기』 수인기 2년(是歲)조의 분주에 나오는 의부가라(意富加羅, 오호가라)는 김해의 대가락을 가리키듯이 백제국인이라고 하는 의보니왕은 가야왕을 연상시킨다. 『신찬성씨록』 계보 중에는 백제계와 가야계가

5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5년 7월2일조. “差判官長岑宿禰高名, 准錄事高丘宿禰百興, 今向鎮家, 兼送文條.”

54 『文德實錄』 仁壽 원년 정월 갑신조. “外從五位下高丘宿禰百興爲尾張介”

55 『文德實錄』 齊衡 3년 정월 병진조. “外從五位下高丘宿禰百興爲越前介”

56 『三代實錄』 貞觀 원년 정월 경오조. “外從五位下高丘宿禰百興爲和泉守”

57 『三代實錄』 貞觀 5년 2월 계묘조. “和泉守從五位下高丘宿禰百興爲河內守”

혼재되거나 착란된 사례가 있다. 불명확한 계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서기』 등 고기류를 참조하여 출자와 조상명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사전사씨도 『신찬성씨록』에 등재하기 위해 만든 씨족지에 가상의 인물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씨족은 이후 사료상에 확인되지 않는다.<sup>58</sup>

## VI. 맺음말

---

사비시대 사택씨는 백제 왕권사에서 타씨족을 압도한 지위를 독점하였다. 대좌평, 상좌평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대수령’으로서의 위치는 사비시대 전시기를 통해서 변함이 없었다. 성왕대 조정회의의 의장 상좌평의 위치에 있었던 사택기루는 당시 가야 등 대외정책을 주도하여 왕권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반이 되었다. 그후 사택씨는 위덕왕대에 왕제였던 혜왕의 손자인 무왕과 혼인관계를 맺는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한다. 『일본서기』 흠명기 16년(555) 8월조에 위덕왕 여창이 출가를 결심하자 국가종묘는 누가 지키겠느냐는 신하들의 간언으로 100인을 출가시키는 조건으로 중지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한 중심 인물은 조정회의 의장인 사택씨였다. 무왕 즉위 후에 사택적덕의 딸은 왕후로 승격되었고 왕실 외척으로서 귀족들을 통솔하는 대좌평의 지위는 확고해졌다.

미륵사라고 불리우는 익산의 왕흥사 조영은 천도를 염두에 둔 국가사업이었다. 사비의 왕흥사를 이전시켜 새로운 호국사찰로서의 위용에 걸맞는

---

58 『和名類聚抄』에 安藝國 沙田郡의 지명이 나오고, 『文德実録』 仁壽 3년(853) 10월 계유 조에도 安藝國 沙田郡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沙田史氏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명이다.



규모로 축조하였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3원 가람으로 9층으로 설계된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탑을 세웠다. 미륵신앙이 토대가 되어 새로운 군주상이 투영된 무왕 통치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왕흥사가 조영되고 천도가 추진되던 시기에 무왕은 노년으로 병약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새로 즉위한 의자왕은 천도를 중지한 채 사비시대를 그대로 이끌었다. 사비와 익산 2개의 왕흥사의 존재는 호국사찰로서의 기능과 신구 왕도의 교체 계획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의자왕대의 대외정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외교와 전쟁을 병행해 나갔다. 왜국에 대좌평 사택지적을 비롯한 사절단 파견은 대신라 군사외교의 일환이었다. 의자왕 즉위 직후 권력의 계승, 천도문제로 대규모 숙청을 감행했다면 무왕대의 집정관이었던 사택씨의 모습을 사라졌을 것이다. 사택지적은 몸이 쇠한 노후까지 대좌평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금과 옥으로 장식된 장엄한 사찰을 조영하는 등 권세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왕실이 해체되기까지 의자왕 측근에서 보유했던 인물은 ‘대수령대좌평’이었던 사택천복이었다. 그의 일족인 좌평 사택손등은 당의 전후처리를 위한 대일외교에 송사로서 파견되었다.

주류성 함락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좌평 사택소명은 법관대보로서 등용되어 왜왕권의 신국가건설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는 근강령 제정에도 참여하였고, 뛰어난 학식과 문장가로서 당대의 석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사후 일본조정에서는 정3위의 관위와 백제의 대좌평을 관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등 예우하였다. 사택소명의 후예들 중에는 주금박사로서 활동한 사택만수(沙宅萬首)가 있고, 내시사의 여관으로 종5위하에 서임된 사택만복이 있다. 전자는 사택소명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사택씨 일족으로 사택소명과 함께 망명한 사문영(沙門詠)의 후예들은 고위관리로서 저건되고 있다. 그의 아들인 낙랑하내는 뛰어난 문장가로 정5위하 대학두의

직위에 올랐다. 손자인 고구숙네비랑마려은 내장료의 차관으로 대외기, 원강수를 겸직하였다.

사비시대 120여년 동안 대좌평의 지위를 독점한 씨족은 사택씨가 유일하다. 사택씨의 성공은 권력에 밀착된 외척의 신분을 넘어 백제왕권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헌신하였고, 왕흥사의 창건은 지배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續日本紀』, 『文德實錄』, 『三代實錄』, 『東大寺要錄』, 『入唐求法巡禮行記』, 『藤氏家傳』, 『善隣國寶記』, 『大日本古文書』, 『和名類聚抄』.

### 2.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부여문화재연구소, 『益山 彌勒寺址』: 제17차발굴조사. 201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王興寺址』 II: 기와가마터 발굴조사보고서. 2007.

\_\_\_\_\_, 『王宮里發掘中間報告』 VI. 2008.

\_\_\_\_\_, 『王興寺址』: 왕흥사지 VII. 2016.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直木孝次郎, 『古代日本と朝鮮・中國』. 講談社學術文庫, 1988.

瀧川政次郎, 『律令の研究』. 刀江書院, 1921.

### 3. 논문

吉基泰, 「백제의 呪禁師와 藥師信仰」. 『신라사학보』 6, 2006, 69-105쪽.

김기홍, 「서동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학보』 205, 2010, 159-180쪽.

김영심, 「利器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시기 국왕과 귀족세력의 권력관계」. 『한국사연구』 163, 2013, 1-39쪽.

박남수, 「신라중고기초의 僧政과 寺主」. 『신라문화』 42, 2013, 27-52쪽.

宋日基, 「京都 靑蓮院藏 「觀世音應驗記」 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서지학연구』 30, 2005, 129-149쪽.

연민수,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 『新羅文化』 6, 1990, 105-143쪽.

\_\_\_\_\_, 「백제의 대외외교와 왕족」. 『백제연구』 27, 1997, 195-216쪽.

이용현, 「미륵사 건립과 사택씨」. 『新羅史學報』 16, 2009, 45-81쪽.

장인성,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251-288쪽.

정재운, 「彌勒寺 舍利奉安記를 통해 본 武王·義慈王代의 政治的 動向」. 『한국사학보』 37, 2009, 33-62쪽.

조경철, 「백제 왕흥사의 창건과정과 미륵사」. 『史叢』 70, 2010, 1-27쪽.  
주보돈, 「彌勒寺址 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 왕비」. 『百濟學報』 7, 2012, 31-55쪽.

西本昌弘,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 107, 1985, 1-18쪽.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1980, 101-130쪽.

榮原永遠男, 「奈良時代の阿弥陀悔過」. 『續日本紀と古代社会』, 塙書房, 2014, 133-151쪽.

齒田香融, 「古代の知識人」. 『岩波講座日本通史』 第5巻 古代4, 1995, 153-186쪽.

川上富吉, 「高丘連河内伝考: 萬葉集人物伝研究(十)」. 『大妻女子大学紀要』 49, 2017, 1-14쪽.

## 국문초록

사비시대 대좌평의 지위를 독점한 씨족은 사택씨였다. 성왕대 조정회의(朝廷會議) 의장인 상좌평 사택기루(沙宅己婁)는 대외정책을 주도하였다. 그 후 사택씨는 위덕왕대에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한다. 무왕 즉위 후에 사택덕적(沙宅德積)의 딸은 왕후로 승격되었고 왕실 외척으로서 귀족들을 통솔하는 대좌평의 지위는 확고해졌다. 의자왕대 왕흥사(王興寺)의 창건과 대좌평 사택지적(沙宅智積)의 장엄한 사찰은 사택씨 권세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왕실이 해체되기까지 의자왕 측근에서 보유했던 인물은 대좌평(大佐平) 사택천복(沙宅千福)이었다. 주류성 함락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좌평 사택소명(沙宅紹明)은 법관대보로서 등용되었다. 그의 후예 중에는 주금박사(鑄金博士)로서 활동한 사택만수(沙宅萬首)와 내시사의 여관(女官)으로 종5위하에 서임된 사택만복(沙宅萬福)이 있다. 사택소명과 함께 망명한 사문영(沙門詠)의 후예들은 대학두 등 고위관리로서 활동하였다. 사택씨는 권력에 밀착된 외척의 신분을 넘어 백제왕권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하였고, 백제멸망 후에는 일본조정에서 가문을 계승해 나갔다.

투고일 2020. 9. 14.

심사일 2021. 1. 25.

게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사택기루(沙宅己婁, Sataek Giru), 사택덕적(沙宅德積, Sataek Deokjeok), 왕흥사(王興寺, Wangheung Buddhist Temple), 사택지적(沙宅智積, Sataek Jijeok), 사택소명(沙宅紹明, Sataek Somyeong), 사문영(沙門詠, Samunyeong)

## Abstracts

### The Phase of the Sataek Family in the Sabi Period and Their Descendent Families after the Fall of the Country

Yeon, Min-soo

It was the Sataek family that had monopoly over the position of Daejwapyeong during the Sabi period. Sangjwayeong Sataek Giru, who was the chairperson at royal court meeting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 led Baekje's foreign policies. Later the Sataek family emerged as the force of maternal relatives in the royal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Deok. A daughter of Sataek Deokjeok was promoted to the queen status after King Mu ascended the throne, and the status of Daejwapyeong to command the noblemen as the force of maternal relatives in the royal family was further consolidated. The construction of Wangheung Buddhist Temple during the reign of King Uija and the grand Buddhist temple built by Daejwapyeong Sataek Jijeok demonstrated that the power of the Sataek family was alive and well. It was Daejwapyeong Wangheung Buddhist Temple that attended to King Uija and preserved his integrity until the royal family of Baekje broke up. Jwapyeong Sataek Somyeong, who sought asylum in Japan right after the Juryu fortress was captured, was appointed as Beopgwandaebo. His descendents include Sataek Mansu that worked as Jugimbaksa and Sataek Manbok that was appointed to Jong5Wiha as a female official at Naesisa. The descendents of Samunyeong that sought asylum along with Sataek Somyeong were active as high-rank officials such as Daehakdu. The Sataek family made contributions to the ongoing stability of the royal authority in Baekje beyond their status as maternal relatives closely linked to power and maintained their succession at the royal court of Japan after the fall of Baekje.